

감탄사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 연구*

김문기**

I. 머리말

본 논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 표제어로 등재된 한국어 복합어 감탄사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¹⁾

* 본 논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그 의견들 대부분은 필자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복합어 감탄사에 대한 연구 경향이나 실정 등을 고려할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기에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언급된 문법 단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삼아 더 구체화해 보고자 한다.

** 경성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강사

1) 물론 『표준』 이후에 여러 저명한 기관에서도 국어사전을 편찬한 바 있지만, 공인성이나 표준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표준』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이때 <우리말샘>은 『표준』과 달리 개방형 사전이라는 점에서, 어원사전은 그 증거성과 객관성,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 (1) ㄱ. 그래-그래, 아이고-아이고, 험-험, 호-호3 등
- ㄴ. 까짓-것, 어야-디야, 아이고며나-나 등
- ㄷ. 새-아가, 거-참, 그것-참 등

(1)은 그 구성 요소로 감탄사를 포함하는 복합어 감탄사들이다. (1ㄱ)은 선·후행 요소가 모두 감탄사인 경우이며, (1ㄴ)은 선행 요소가, (1ㄷ)은 후행 요소가 감탄사인 경우이다. 이처럼 (1)은 감탄사가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에 전체 단어의 품사는 감탄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그런데 그 구성 요소로 감탄사를 포함하지 않는 복합어 감탄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2) ㄱ. 도리(명)-도리(명), 요(관)-개(명)1, 세상(명)-에(조), 오라(명)-질(접사) 등
- ㄴ. 저멀리-직직(부), 우향-우(명), 우라-질(접사) 등
- ㄷ. 이리(부)-연초, 길음(명)-마 등
- ㄹ. 곤두-곤두, 아이스-케키, 시재-시재(時哉時哉) 등

(2)는 복합어 전체가 ‘단어’로서 감탄사인 예들이다. (2ㄱ)은 선·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예이고, (2ㄴ)은 선행 요소가 어떤 문법 범주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2ㄷ)은 후행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것이며, (2ㄹ)은 선·후행 요소 모두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예이다.

- (3) ㄱ. 우향-우(右向右), 저멀리-직직
- ㄴ. 옛-단쇠
- ㄷ. 육시(戮屍)-랄, 맘-소사

(3)은 단어가 아닌 어떤 문법 단위가 감탄사로 쓰인 예들이다. (3ㄱ)은 구와 명사 또는 구와 부사가 결합된 구성이며, (3ㄴ)은 무엇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구 구성이 감탄사로 쓰인 것이다. (3ㄷ)은 통사적 구성에 해당되는 것이

감탄사로 쓰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와 (3)처럼 그 구성 요소로 감탄사를 포함하지 않는 복합어 감탄사를 대상으로 그 결합 양상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어 감탄사가 감탄사로 설정될 가능성과 그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²⁾

II. 감탄사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

현재로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관련된 앞선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³⁾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구성 요소로 감탄사를 포함하지 않는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과 그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이에 해당하는 복합어 감탄사의 목록을 『표준』에서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⁴⁾

(4) 가동-가동, 걸음-마, 곤두-곤두, 곤지-곤지, 굽-아, 나무-아미타불(南無

-
- 2) 기존의 감탄사 연구는 주로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복합어 감탄사의 경우는 결국 복합어로서 그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가 규명되어야 하며, 이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분명 필요하다. 즉, 문법론적인 측면에서 복합어 감탄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복합어 감탄사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 3)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어 감탄사에 대한 문법론적인 연구가 드물다. 물론 양양(2011)과 두청(2016) 등처럼 한국어의 감탄사에 대한 문법론적인 접근이 있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주로 표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어서 복합어 감탄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였다. 따라서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과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 판단된다.
 - 4) 본 논문에서는 감탄사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는 복합어 감탄사 53개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김문기(2019, 411-414)에서는 복합어 감탄사를 ‘단어형’과 ‘문장형’으로 분류하여,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 중 감탄사가 구성 요소인 예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금은 감탄사에서 제외된 ‘빙모(聘母)-남’을 포함하여 118개로 산정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117개가 된다. 그리고 이때 감탄사가 구성 요소로 포함한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에서 ‘어야 디야, 어아-어이, 예야 디야, 예-예1, 예-이2, 우-우2, 죄죄-반반, 하-하2, 허-허’ 등 9개가 누락되어 있었다.

阿彌陀佛), 달강-달강2, 동개-동개, 도라-도리, 도-시위(侍衛), 드레-드레2, 따로-따로2, 맵-소사, 무에리-수에, 봐-시위(侍衛), 부라-부라, 섬마-섬마, 세상(世上)-에, 시장-시장, 시재-시재(時哉時哉), 시호-시호(時乎時乎), 아이스-케이크(←ice cake), 안가-시위(安駕侍衛), 알나리-깔나리, 어허라-달구야, 어허야-어허, 옛-단쇠, 예-시위(詣侍衛), 오냐-오냐, 오라-질, 오래-오래2, 왕배야-덕배야, 요-개1, 우라-질, 우향-우(右向右), 육시(戮屍)-랄, 이-개1, 이-괴, 이리-연초, 이리-위, 자장-자장, 저리-위, 저멀리-직직, 좌향-좌(左向左), 죄암-죄암, 쥐엄-쥐엄, 질라래비-훨훨, 짹짹-짜짜공, 천만(千萬)-에, 천지(天地)-에, 천하(天下)-에, 허허-둥둥, 허허-이루후어

구성 요소로 감탄사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어의 문법 범주는, 구성 전체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특정 상황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감탄사가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성 요소로 감탄사를 포함하지 않은 복합어의 문법 범주를 어떻게 감탄사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이들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을 분석해 보고, 그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를 살펴보았으며, 각 구성 요소들의 의미와 전체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적 연관성을 확인하려 한다. 이는 복합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둔 결과로서, 복합어 감탄사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합어의 문법 범주 결정에는 그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가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어 전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 총합으로 결정된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⁵⁾

본 논문에서는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들의 구성 요소들이 지니는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해 보았다.⁶⁾

-
- 5) 물론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어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설로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6) 여기에서 제시하는 분류 방식은 실제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여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는 것이다. 즉,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로서는 완전하고 균형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구성 요소들의 특성과 관련된

[표 1] 복합어 감탄사의 유형 분류

분류		결합 양상	복합어 감탄사 목록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 (44개)	모든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것	자립+자립	명사+명사 관형사+명사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도리-도리, 시강-시강, 짹짹-짹짹
		자립+의존	명사+조사	꿈-아, 세상(世上)-에, 천지(天地)-에, 천하(天下)-에
			부사+조사	천만(千萬)-에
		어근+어근	어근+어근	가동-가동
	한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것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것	명사+불분명 어근	엇-단쇠
			부사+불분명 어근	이리-위, 저리-위
		선행 요소가 불분명한 것	명사+준어근	걸음-마
			부사+준어근	이리-연초, 허허-이루후어
	모든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것	불분명 어근 + 불분명 어근	명사+준어근	도시위(侍衛), 뵤-시위(侍衛), 안가-시위(安駕侍衛), 예-시위(詣侍衛)
			준어근+부사	질라래미-훨훨
		불분명 어근+준어근	준어근+접사	우라-질
			준어근+준어근	곤두-곤두, 곤지-곤지, 달강-달강2, 드레-드레2, 따로-따로2, 부라-부라, 오나-오나, 오래-오래2, 허허-등등
	구 구성형 복합어 감탄사 (6개)	구+명사	[명사+어근]+명사	우향-우(右向右), 좌향-좌(左向左)
		구+부사	[관형사+부사]+부사	저멀리-직직
구+불분명 어근		[불분명 어근+조사] + 불분명 어근	어허야어허	
		구+구	[불분명 어근+어미] + [명사+조사]	어허라-달구야
[불분명 어근+조사] + [불분명 어근+조사]			왕배야-덕배야	
융합형 복합어 감탄사 (3개)		단어+용언 활용형	명사+동사 어간+어미	오라-질
	명사+[조사+동사 어간+어미(융합형)]		육시(戮屍)-랄	
	용언 활용형+어미	동사 활용형+어미	맙-소사	

사항은, 지금으로서는 『표준』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혀 둔다.

여기서 위 분류에서 제시되는 문법 단위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먼저 본 논문에서는 복합어 감탄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문법 범주’를, 단어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품사’와, 복합어 형성에 관여하는 ‘어근’과 ‘접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어미’는 제외된다.

- (6) ㄱ. 어근: 『표준』에 ‘어근’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복합어 형성에 관여함. 대부분 단어와 일치하되, 단어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자립성을 많이 띠어 단어에 가까운 문법 단위.
- ㄴ. 불분명한 어근: 『표준』에서는 어근이나 특정 문법 범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구성 요소로 하는 복합어 감탄사 전체의 의미와 의미적 연관성이 적거나 없는 것.
- ㄷ. 준(準)어근: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서 ‘어근’은 아니지만 ‘어근’에 가까운 어휘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⁹⁾

(6ㄱ)의 ‘어근’은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에서의 ‘어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어사전에서의 단어 처리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곧 복합어 형성에 관여하며

- 7) ‘융합형’에 해당하는 복합어 감탄사는 완전한 문장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관용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것은 그 구성 요소와 해당 복합어 감탄사를 형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 구성형’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였다. 즉, ‘구 구성형’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태가 바뀌지 않은 데 비해 ‘융합형’은 형태의 변화가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 8) 여기에서 제시한 문법 단위에 대한 용어와 개념은,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어법 전반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을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에는 기존의 문법 단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관여한다는 것이 분명함을 보여 준다. 이들 문법 단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밀한 연구는, 다른 복합어의 결합 양상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다른 논의를 통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 9) 참고로, ‘특수 어근’은 일반적으로 ‘착하다, 아름답다’ 등의 ‘착, 아름답’과 같은 요소들로서, 『표준』에 ‘어근’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즉, 파생어 형성에서 분명한 접사와 결합한 요소가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의 ‘준어근’은 합성어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생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단은 ‘특수 어근’과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로 단어로 처리 가능하지만, 완전히 단어로 확정하기 곤란한 문법 범주를 나타낸다. (6ㄴ)의 ‘불분명 어근’은 국어사전에서는 분명히 ‘어근’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복합어 감탄사 전체의 의미와 명백한 연관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¹⁰⁾ (6ㄷ)의 ‘준어근’은 ‘어근’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곧 ‘어근’이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서 자립성을 지니는 문법 단위라면, ‘준어근’은 ‘어근’의 자립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어휘성을 띠는 문법 단위를 의미한다. 또한 ‘준어근’은 『표준』에서 조사, 어미, 접사 등의 문법적 요소로는 처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법적 요소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¹¹⁾

물론 이러한 분류 방식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감탄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기에 문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 시도해 본 분류에 해당된다. 즉, 감탄사도 하나의 언어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구성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하나의 언어 형식이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조어법의 측면에서 이러한 복합어 감탄사의 내부 구조를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복합어 감탄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방법으로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 한다. 이제 이들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0) ‘준어근’은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지만 『표준』에는 등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의미적 측면에서의 ‘불분명 어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준어근’은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의미를 추측하기가 곤란한 것인데 비해, ‘불분명 어근’은 『표준』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로는 그것이 포함된 복합어 감탄사 전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1) 결국 ‘준어근’은 조어법의 문법 단위인 ‘어근’과 ‘접사’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문법 범주라 할 수 있으므로, ‘반(半)어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법 단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어법 전반을 살펴본 후에야 가능하므로, 추후 다른 논의를 통해 다루어 보려 한다.

1.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

1)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것

가. 자립 요소+자립 요소

- (7) ㄱ.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도리-도리, 시장-시장, 짹짹-짹짹
 ㄴ. 요-개1, 아-개1, 아-괴

(7ㄱ)은 ‘명사+명사’, (7ㄴ)은 ‘관형사+명사’의 내부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7ㄴ)의 ‘이개1’과 ‘이괴’의 선행 요소인 ‘이’는 ‘대명사, 관형사, 감탄사’일 가능성이 있다.

- (8) ㄱ. 이5 [I]「대명사」「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3」 (복수 접미사 ‘-들’ 앞에 쓰여) ‘이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II]「관형사」「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2」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ㄴ. 이6 「감탄사」 다른 사람이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급히 지르는 소리.
 ㄷ. 요3 「관형사」「1」 ‘이’를 낮잡아 이르거나 귀엽게 이르는 말. 「2」 ‘이’를 낮잡아 이르거나 귀엽게 이르는 말.

곧 (8ㄱ)으로 본다면 대명사, 관형사로 쓰이며 (8ㄴ)에 의하면 감탄사로 파악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7ㄴ)의 ‘요개1’의 선행 요소 ‘요’에 대한 (8ㄷ)으로 본다면, (7ㄴ)의 ‘이개1’에서 선행 요소 ‘이’는 그 의미적 연관성으로 볼 때 관형사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관점에서 (7ㄴ)에서 ‘이괴’의 ‘이’ 또한 ‘이개1’과의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관형사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

다.¹²⁾ 또한 (8ㄴ)처럼 감탄사로 본다면, 주의 환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개’로 바뀌게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¹³⁾

나. 자립 요소 + 의존 요소

- (9) ㄱ. 굽아, 세상(世上)-에, 천지(天地)-에, 천하(天下)-에
- ㄴ. 천만(千萬)-에

(9ㄱ)은 ‘명사+조사’, (9ㄴ)은 ‘부사+조사’의 내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9ㄱ)의 ‘굽아’에서 ‘아’의 문법 범주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 뜻 풀이를 참고한다면, 조사로 볼 가능성이 있다.

- (10) ㄱ. 굽아: 소에게 굽을 들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 ㄴ. 굽 「명사」 「1」 말, 소, 양 따위 짐승의 발 끝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발톱. 「2」 구두나 운동화 따위의 밑바닥에 붙은 발. 「3」 그릇 따위의 밑바닥에 붙은 나지막한 받침. 「4」 나막신 바닥에 달린 두 개의 발.
- ㄷ. 아9 「조사」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 조사.

한편, (9ㄱ)과 (10ㄴ)의 ‘-에’는 조사일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와 ‘천만에’를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ㄱ. 세상에: 뜻밖의 일이 생겨서 놀랐을 때 하는 말.

12) 요-개! 「감탄사」 개를 쫓을 때 내는 소리. ‘이개’보다 작고 귀여운 느낌이나 낮잡는 느낌을 준다.
 아-개! 「감탄사」 개를 쫓을 때 지르는 소리.
 아-괴 「감탄사」 고양이나 도둑을 쫓을 때 지르는 소리.

13) 만약 감탄사로 본다면 ‘이개!’, ‘요개!’, ‘이괴’의 뜻풀이에 따라 (8ㄴ)의 뜻풀이에 제시되어 있는 ‘그 사람’이 ‘모든 것’ 정도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ㄴ. 세상1(世上) 「명사」 「1」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 또는 그 기간의 삶. 「3」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 「4」 절, 수도원, 감옥 따위에서 바깥 사회를 이르는 말. 「5」 세상 사람들의 마음. 「6」 ‘지상’을 천상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7」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 ‘비할 바 없이’, ‘아주’의 뜻을 나타내는 말. 「8」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 ‘도무지’, ‘조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12) ㄱ.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거나 남이 한 말에 대하여 겸양의 뜻을 나타낼 때 하는 말.

ㄴ. 천만1(千萬) [I] 「수사」 만의 천 배가 되는 수. [II] 「관형사」 만의 천 배가 되는 수의. [III] 「명사」 「1」 천이나 만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수효를 이르는 말. 「2」 이를 데 없음, 또는 짝이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 [IV] 「부사」 ‘아주’, ‘전혀’의 뜻을 나타내는 말.

(13) ㄱ. 예2 「감탄사」 「1」 뜻에 맞지 아니하여 속이 상할 때에 혼자서 하는 소리. 「2」 가볍게 거절하는 뜻으로 하는 소리. 「3」 남을 나무랄 때 하는 소리. 「4」 스스로 생각을 끊어 버리려 할 때 내는 소리. 「5」 무엇을 생각하거나 기억을 더듬을 때 내는 소리. 「6」 말을 시작하거나 말하기를 망설일 때, 또는 말하는 도중에 뒷말이 곧 나오지 아니할 때 내는 균소리. 「7」 기분이 상쾌할 때 스스로 내는 소리.

ㄴ. 예4 「조사」 [I] (체언 뒤에 붙어) 「1」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2」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3」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4」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5」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6」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7」 앞말이 목표나 목적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8」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9」 앞말이 조건, 환경, 상태 따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0」 앞말이 기준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1」 앞말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2」 앞말이 말아보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3」 앞말이 제한된 범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4」 (‘관하여(관한)’, ‘대하여(대한)’, ‘의하여(의한)’, ‘있어서’ 따위와 함께 쓰여)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5」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㉔ (체언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11ㄱ)은 (11ㄴ)에서 그 의미적 연관성을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며, ‘-에’ 역시 (13ㄴ)에서 어떤 뜻에 해당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12ㄱ)은 (12ㄴ[Ⅲ]「2」)나 (12ㄴ[Ⅳ])와의 의미적 연관성을 어느 정도 포착 가능하다. 하지만 (13ㄴ)에서 (12ㄱ)에 해당되는 ‘-에’의 의미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남는다.

복합어 감탄사 전체의 의미와 비교해 볼 때, 후행 요소는 (13ㄱ)처럼 감탄사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조사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13ㄴ)에서 어느 것이 (11ㄱ), (12ㄱ)과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높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11ㄱ)과 (12ㄱ)은 특정 상황에서만 특정한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 화용론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감탄사에 쓰인 ‘-에’의 의미 기능을 국어사전에서 처리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다. 어근+어근

- (14) ㄱ. 가동-가동: 어린아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 하는 소리.

ㄴ. 가동1: ‘가동거리다’의 어근.

ㄷ. 가동-거리다 「동사」 어린아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에, 아이가 다리를 오그렸다 폈다 하다.

(14ㄱ)은 ‘어근+어근’의 내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4ㄴ, ㄷ)으로 볼 때, 어근 ‘가동1’과 (14ㄱ)의 의미적 연관성이 뚜렷하다.¹⁴⁾

2) 구성 요소 중 하나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것

가.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것

이에는 ‘명사+불분명 어근’, ‘부사+불분명 어근’, ‘명사+준어근’, ‘부사+준어근’의 구성이 있다. 첫째, ‘명사+불분명 어근’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5) ㄱ. 옛-단쇠: 옛장수가 옛을 사라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

ㄴ. 옛1 「명사」 곡식으로 밥을 지어 옛기름으로 삭힌 뒤 쪄볼로 밥이 물처럼 되도록 끓이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 짜낸 다음 진득진득해질 때까지 고아 만든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

ㄷ. 단-쇠 「명사」 높은 열에 달아서 뜨거워진 쇠.

(15ㄱ)은 ‘명사+[동사 활용형+명사]’의 내부 구조로 보이는데, 이때 후행 요소를 과연 ‘[동사 활용형+명사]’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15ㄷ)의 의미가 (15ㄱ)에 반영되거나, (15ㄷ)의 ‘달다’의 의미나 ‘쇠’의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15ㄱ)은 (15ㄷ)의 구성

14) 사실 ‘가동가동’은 부사와 감탄사로 모두 쓰이는 품사 통용의 단어이다. ‘부사’일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에, 아이가 자꾸 다리를 오그렸다 폈다 하는 모양’으로, 감탄사일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겨드랑이를 치켜들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를 때 하는 소리’로 그 뜻이 제시되어 있다. 이때 부사의 의미는 (14ㄴ, ㄷ)과 관련된 ‘어린아이를 어를 때 하는 어린아이의 동작’이지만 감탄사의 의미는 ‘어린아이를 어를 때 내는 주체의 소리’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14ㄱ)에서의 ‘가동’은 (14ㄴ)과는 다른 문법 단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싶다.

요소로 보이는 것들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므로 하나의 어근으로 파악한 것이다.

둘째, ‘부사+불분명 어근’에 대해 살펴본다.

(16) ㄱ. 이리-위: 선배들이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축하하는 뜻으로 앞으로 나오겠다 뒤로 가겠다 하면서 놀릴 때, 앞으로 나오라는 뜻으로 외치던 소리.

ㄴ. 저리-위: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축하하는 뜻으로 선배들이 앞으로 나오겠다 뒤로 가겠다 하면서 놀릴 때, 저쪽으로 뒷걸음 쳐서 가라는 뜻으로 외치던 소리.

(16)은 ‘부사+불분명 어근’에 해당하는 감탄사이다. 이때 선행 요소 ‘이리’, ‘저리’는 뜻풀이로 볼 때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행 요소 ‘위’는 ‘높은 쪽’과 관련된 위치나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로 『표준』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16)에서는 ‘위’의 의미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¹⁵⁾

셋째, ‘명사+준어근’의 예는 다음과 같다.

(17) 걸음-마: 어린아이에게 걸음을 익히게 할 때 발을 떼어 놓으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선행 요소인 ‘걸음’은 명사에 해당하지만 후행 요소인 ‘마’는 『표준』에 실려 있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마’를 찾을 수 없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마’가 단음절이며 접사로 볼 근거 또한 없다는 점과, 이와 유사한 다른 예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준어근’으로 보았다.

15) 우리말에서 위치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서로 전용되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단어가 ‘앞’과 ‘뒤’라는 두 위치의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는 점에서 ‘불분명한 어근’으로 처리하였다. ‘이리-위’와 ‘저리-위’의 ‘위’는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의 뜻이므로, 그 공간이나 위치 개념으로서 충분히 ‘앞’과의 연관성을 포착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부사+준어근’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8) ㄱ. 이리-연초: 심마니들의 은어로, ‘이곳에 모여 쉬자.’라는 뜻으로 쓰는 말.
 ㄴ. 허허-이루후어: 예전에, 과거 급제 증서를 받은 사람의 뒤를 따르는 별배(別陪)들이 자주 잇따라 높이 외치던 소리.

(18ㄱ)은 ‘부사+불분명 어근’에 해당하는 감탄사이다. (18ㄱ)에서 선행 요소인 ‘이리’는 뜻풀이로 볼 때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임을 알 수 있지만, 후행 요소인 ‘연초’는 『표준』에 실려 있지 않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¹⁶⁾ (18ㄴ)의 선행 요소 ‘허허’는 부사 또는 감탄사일 수 있는데, 감탄사로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18ㄴ)에는 이러한 감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선행 요소가 불분명한 것

여기에는 ‘준어근+명사’, ‘준어근+부사’, ‘준어근+접사’의 구성으로 된 것이 있었다. 첫째, ‘준어근+명사’에 해당하는 복합어 감탄사는 다음과 같다.

- (19) ㄱ. 도-시위(侍衛): 조선 시대에, 임금을 시위(侍衛)하면서 봉도(奉導)할 때에 쓰던 말. 가교(駕轎)나 연(輦)의 머리를 돌려서 모시라는 뜻이다.
 ㄴ. 보-시위(侍衛): 임금이 거동할 때 주의하여 모시라는 뜻으로 봉도(奉導)에서 외치던 소리.
 ㄷ. 예-시위(詣侍衛): 모시고 나가자는 뜻으로, 봉도(奉導)에 쓰던 외침 소리.
 ㄹ. 안가-시위(安駕侍衛): 임금이 행차할 때 편히 모시라는 뜻으로, 봉도별감이 외치는 소리. 임금이 탄 연(輦)이나 옥교(玉轎), 가교

16) ‘연초’는 『표준』에 ‘연초1(年初), 연초2(煙草), 연초3(煙硝)’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즉, 한자어가 아닌 ‘연초’는 없었기 때문에 ‘준어근’으로 본 것이다.

(駕轎)의 머리채를 잡은 봉도별감이 목청의 높낮이와 길이를 조절하면서 ‘시위, 예시위’ 하고 선창하면 다른 여러 별감이 따라서 화창(和唱)한다.

(19)에서 후행 요소 ‘시위’는 모두 명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의 선행 요소는 모두 『표준』에 없었다. 물론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은 있었지만, 한자나 순 우리말로써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준어근’으로 본 것이다.

둘째, ‘준어근+부사’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20) ㄱ. 질라래비-훤훤: 어린아이에게 새가 훤훤 날듯이 팔을 흔들라는 뜻으로 하는 말.
 ㄴ. 질라래비: 『표준』에 없음.
 ㄷ. 훤훤 「부사」 「1」 날짐승 따위가 높이 떠서 느릿느릿 날개를 치며 매우 시원스럽게 나는 모양. 「2」 불길이 세차고 매우 시원스럽게 타오르는 모양. 「3」 큰 부채 따위로 느릿느릿 매우 시원스럽게 부치는 모양. 「4」 옷 따위를 매우 시원스럽게 벗어 버리거나 벗기는 모양. 「5」 길 따위를 시원스럽게 흥가분한 기분으로 떠나는 모양. 「6」 가벼운 물건을 느릿느릿 시원스럽게 뿌리는 모양.

(21 ㄱ)의 선행 요소인 ‘질라래비’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준어근으로 처리하였으며, 후행 요소 ‘훤훤’은 부사로서의 의미와 동일하였다.¹⁷⁾

셋째, ‘준어근+접사’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자.

- (21) 우라-질: 일이 뜻대로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 때 혼자서 욕으로 하는 말.¹⁸⁾

17)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즉, 표제어 ‘질라래비 훤훤’에 대한 뜻풀이에서 표제어의 일부인 ‘훤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8) 『표준』에는 동사 ‘우라지다’가 동사로서, “(주로 ‘우라질’, ‘우라지게’ 꼴로 쓰여) 오라를 지는

이는 의미상 ‘오라질’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오라’와 ‘우라’의 관련성이 『표준』에 분명하지 않다¹⁹⁾. 더구나 ‘우라’는 ‘오라’와 달리,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한편, 후행 요소인 ‘질’은 그 의미상 접미사로 파악 가능하다.²⁰⁾

3)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 모두 불분명한 것

여기에는 ‘불분명 어근+불분명 어근’, ‘불분명 어근+준어근’, ‘준어근+준어근’의 구성이 있었다. 첫째, ‘불분명 어근+불분명 어근’ 구성에 해당되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것처럼 잘못되거나 나쁘게 된다는 뜻으로, 몹시 마음에 맞지 아니함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오라지다’가 변한 말이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런데 감탄사인 ‘우라질’은 ‘우라-질’로 제시되어 있다. 만약 ‘우라질’이 ‘우라지다’의 활용형이라면, ‘복합어의 최종 분석 단위 경계 표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표준』의 표제어 제시 방식에 따라 복합어로 파악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 19) ▪ 오라-질: 오라에 묶여 갈 만하다는 뜻으로, 미워하는 대상이나 못마땅한 일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불평할 때 욕으로 하는 말.

‘우라’와 ‘오라’를 모음 교체(또는 모음 변화)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우라질’과 ‘오라질’의 의미 차이로 본다면 ‘우라’와 ‘오라’의 의미적 관련성을 확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표준』에서 ‘우라질’을 ‘오라질’의 참고 어휘로 보았다. 『표준』에서 ‘참고 어휘’는 ‘어떤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제어’,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상위 범주어, 하위 범주어, 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와 전문어, 별칭이나 이칭,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말, 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어간이나 어미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말’로 처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세한 의미의 차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라’와 ‘우라’의 의미적 동일성이나 관련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 20) 다음과 같은 접미사 ‘-질’의 의미 가운데, 「4」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질9 「접사」 「1」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2」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3」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4」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5」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6」 ‘그런 소리를 내는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22) 곤두-곤두, 곤지-곤지, 달강-달강2, 드레-드레2, 따로-따로2, 부라-부라, 오냐오냐, 오래-오래2, 허허-둥둥

이들은 모두 선·후행 요소들의 의미가,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와 상관성을 분명히 띠지 않는다. 그리고 선·후행 요소들과 같은 형태의 단어들이 모두 『표준』에 등재되어는 있었지만,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었다.

한편, (22)에서 구성 요소의 뜻이 분명한 것처럼 생각되는 예가 있다. 예를 들어 ‘오냐오냐’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 (23) ㄱ. 오냐오냐: 어린아이의 어리광이나 투정을 받아 줄 때 하는 말.
 ㄴ. 오냐 「감탄사」 「1」 아랫사람의 부름에 대하여 대답할 때 하는 말. 「2」 아랫사람의 물음이나 부탁에 대하여 긍정하여 대답할 때 하는 말. 「3」 어떤 사실을 긍정하거나 다짐할 때 하는 말.

하지만 (23ㄴ)의 의미가 (23ㄱ)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 잠깐 감탄사 ‘그래그래’와 비교해 보자.

- (24) ㄱ. 그래-그래: ‘그래’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ㄴ. 그래1 「감탄사」 「1」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해라할 자리에 쓴다. 「2」 상대방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 해라할 자리에 쓴다. 「3」 다잡아 묻거나 강조할 때 쓰는 말. 주로 의문문에서 삽입어로 쓴다.

(24ㄱ)은 감탄사 (24ㄴ)의 반복 구성에 해당하며, 그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연관성을 포착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23ㄱ)의 의미는 분명히 (23ㄴ)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23ㄴ)이 겹쳐져서 (23ㄱ)의 의미를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감탄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으로 보아 (23ㄱ)은 (23ㄴ)의 반복 구성과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23ㄱ)의 구성 요소인 ‘오냐’를 불분명한 어근으로 처리한 것이다.²¹⁾

둘째, ‘불분명 어근+준어근’ 구성을 살펴보자.

(25) ㄱ. 아이스-케키(←ice cake):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여자아이의 치마를 들추며 내는 소리.

ㄴ. 알나리-깎나리: 아이들이 남을 놀릴 때 하는 말.

(25ㄱ)은 외래어로서, 선행 요소는 형태나 의미가 명사로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후행 요소 ‘케키’는 본래 ‘케이크’의 형태가 줄어들면서 모음 역시 바뀐 것으로, 표준어가 아니다. 이처럼 구성 요소들은 본래 각각 명사로서의 의미가 분명하지만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와는 전혀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25ㄴ)의 경우 선행 요소는 명사로서 ‘어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벼슬한 경우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을 나타내지만, 후행 요소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들 역시 특정 상황에서만 관용어로서의 특정한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 화용론적으로 굳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준어근+준어근’ 구성은 다음과 같다.

(26) 등개-등개, 무에리-수에, 섬마-섬마, 시재-시재(時哉時哉), 시호-시호(時乎時乎), 자장-자장, 죄암-죄암, 쥐엄-쥐엄

(26)의 선·후행 요소는 모두 『표준』에 등재되지 않은 것들이므로 ‘준어근’으로 파악한 것이다. 특히, ‘시재’와 ‘시호’는 한자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여 『표준』에 등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았다. 결국 특정 상황에서만 특정한 의미로 쓰인다는 점에서 화용론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21) (23ㄱ)은 (23ㄴ)이 반복된 구성이기는 하지만, 대답이나 다짐의 말로서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만 관용어로서의 특정한 의미를 발현한다는 점에서 화용론적인 쓰임으로 굳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 역시 있다.

파악할 수 있다.

2. 구 구성형 복합어 감탄사

여기에는 ‘구+명사’, ‘구+부사’, ‘구+불분명 어근’, ‘구+구’ 등의 구성이 있었다.

- (27) ㄱ. 우향-우(右向右), 좌향-좌(左向左)
 ㄴ. 저멀리-직직²²⁾
 ㄷ. 어허야-어허²³⁾
 ㄹ. 왕배야-덕배야, 어허라-달구야

(27ㄱ)은 ‘구+명사’, (27ㄴ)은 ‘구+부사’, (27ㄷ)은 ‘구+불분명 어근’, (27ㄹ)은 ‘구+구’ 구성에 해당한다. 먼저 (27ㄱ)은 특정 동작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로서, [명사+어근+명사]의 내부 구조를 띤다.²⁴⁾ (27ㄴ)은 [관형사+부사]+부사의 구조로서, 선행 요소인 ‘저멀리’는 관형사 ‘저’와 부사 ‘멀리’가 결합된 구조이다. 그런데 『표준』에는 직접 구성 성분의 경계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복합어 감탄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어근으로 처리하였다. 후행 요소 ‘직직’ 역시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직직’은 『표준』에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어 있지만, 그 의미적 연관성으로 볼 때 ‘직직’의 ‘3’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²⁵⁾

22)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축하하는 뜻으로 ‘저리위’라고 한 뒤, 저리로 더 멀리 뒤로 물러가라고 재촉할 때 내던 소리.

23) 땅을 다지거나 반복되는 동작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동작이나 힘을 맞추려고 내는 소리.
 ▪ 어허 「감탄사」 「1」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 「2」 조금 못마땅하거나 불안할 때 내는 소리.

24) ‘우향’은 ‘우’(명사)와 ‘향(向)’(어근)이 결합된 것으로, 단어보다는 큰 단위의 ‘구’로 보았다.

25) ▪ 직-직1 「부사」 「1」 줄이나 획을 함부로 세게 긋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종이나 천 따위를 세게 마구 찢는 소리. 「3」 신 따위를 끌며 걷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직-직2 「부사」 「1」 액체가 가는 줄기로 자꾸 세게 뻗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2」 물체가

그리고 (27ㄷ)은 ‘구+불분명 어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분명 어근+조사]+불분명 어근’의 구성을 취한다. (27ㄹ)은 ‘구+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불분명 어근+조사]+[불분명 어근+조사]’와 ‘[불분명 어근(어간)+어미]+[명사+조사]’의 구성을 보인다.

- (28) ㄱ. 왕배야·덕배야: 여기저기서 시달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 부르짖는 소리.
 ㄴ. 왕배야: 『표준』에 없음.
 ㄷ. 덕배야: 『표준』에 없음.
 ㄹ. 왕배(往拜) 「명사」 윗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뵈.
 ㅁ. 덕배: 『표준』에 없음.
 ㅂ. 왕배-덕배 「부사」 이리니저러니 하고 시비를 가리는 모양.

(28ㄴ, ㄷ)에서 보듯이 (28ㄱ)의 직접 구성 성분들은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28ㄹ)처럼 선행 요소의 일부인 한자어 ‘왕배’만이 등재되어 있었다. 여기서 잠깐 (28ㄱ)과 (28ㅂ)을 비교해 보면, 이들 사이에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선·후행 요소 각각에 ‘야’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점을 보면, 이들의 분리성이 아주 강하여 선·후행 요소들이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28ㄱ)은 감탄사로서 괴로울 때 내는 소리인 반면, (28ㅂ)은 부사로서 시비를 가리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적인 연관성을 띠고 있다고 하기 곤란하다.

한편, 아래 (29)로 보면 (27ㄷ, ㄹ)의 선행 요소 ‘어허라, 어허야’에서 ‘어허’와 의미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 (29) ㄱ. 어허라·달구야: 땅을 다질 때 여럿이 힘을 모아 동작을 맞추려고 노래하듯이 내는 소리.

- ㄴ. 어허 「감탄사」 「1」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 「2」 조금 못마땅하거나 불안할 때 내는 소리.
- ㄷ. 달구 「명사」 (건설) 땅을 단단히 다지는 데 쓰는 기구.

또한 (27ㄷ)의 후행 요소인 ‘달구야’의 ‘달구’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27ㄷ)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29)로 볼 때 (27ㄷ, ㄷ)의 복합어 감탄사 의미와, 그 구성 요소의 의미 사이에서 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하겠다.

물론 이들은 모두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게 된 소형문(minor sentence)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아이스케키’와 같은 감탄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동작’에 초점을 둔 소형문으로 쓰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²⁶⁾

3. 융합형 복합어 감탄사

여기에는 ‘오라질’, ‘육시랄’, ‘맙소사’가 있다.

- (30) ㄱ. 오라질: 오라에 묶여 갈 만하다는 뜻으로, 미워하는 대상이나 못마땅한 일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불평할 때 욕으로 하는 말.
- ㄴ. 육시(戮屍)-랄: 육시를 할 만하다는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여 욕으로 하는 말.
- ㄷ. 맙-소사: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거나 당할 때 탄식조로 내는 소리.

(30ㄱ, ㄴ)은 ‘단어+용언 활용형’으로서 (30ㄱ)은 ‘명사+동사 어간+어미’, (30ㄴ)은 ‘명사+[조사+동사 어간+어미(융합형)]’의 내부 구조를 지닌다.²⁷⁾ 그

2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미를 바탕으로 감탄사를 분류할 때 화용론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것과, 특정한 ‘동작’을 나타내는 것 등으로 분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류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뜻풀이를 볼 때 (30ㄱ)은 ‘오라를 질’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므로, 후행 요소인 ‘질’은 동사 ‘지5’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30ㄴ)의 후행 요소인 ‘랄’은 목적격 조사 ‘-를’과, 동사 ‘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실현된 활용형이 하나의 형태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 체언에 결합된 조사와, 후행 용언의 활용형이 하나의 단위처럼 줄어든 형태가 한국어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축약이라기보다는 융합으로 보는 편이 더 바람직하겠다.

(30ㄷ)은 ‘동사 활용형+어미’로서 ‘[동사 활용형+선어말 어미+어말 어미]’의 내부 구조로 파악되는데, 『표준』에서 그 어원을 ‘말+읍+쇼셔’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맵쇼샤’가 형성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정 가능하다.²⁸⁾

(31) 말읍쇼셔 → 마읍쇼셔 → 맵쇼셔 → 맵소서 → 맵소사
 ↑ ↑ ↑ ↑
 ① ‘ㄴ’ 탈락 ② /으/ 탈락 ③ 단모음화 ④ 모음 교체

그런데 문제는 ①~④의 음운 변화를 순서대로 적용 가능한가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①과 ②인데, 일반적인 음운 탈락 현상과 연관 지어 설명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또한 ④의 /ㄴ/가 /ㅏ/로 바뀌는 이유를 쉽게 제시하기가 어렵다.

먼저 ①과 관련하여 ‘ㄴ’ 탈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모음 /으/가 ‘말’ 뒤에서 탈락해야 한다. 중세 국어와 관련하여 나찬연(2020c, 81-82)에 따르면, 어간의 끝 음절에 실현된 중성이 /ㄴ/일 때, 그 뒤에 /ㄷ, ㄴ, △/이

27) 이때 ‘용언 활용형’은 특정 용언에 실현된 ‘어미’를 가리킨다. 이러한 ‘어미’가 조어법과 관련하여 실현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접사’로서의 성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복합어 감탄사의 구성 요소를 바로 보여 주기 위해 ‘접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8) 일단 활용 형태의 문법성은 차치하고, 변화의 과정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종성 /ㄹ/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이 ‘아디, 아노니, 아습고’ 등으로, ‘말’이 ‘마져’로, ‘살’이 ‘사져’ 등으로 활용할 때 적용됨을 제시했다. 이는 곧 모음 앞에서 종성 /ㄹ/이 탈락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⁹⁾

한편, 나찬연(2020b, 173-175)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ㄹ’ 불규칙 용언 활용은, 어간의 끝 받침이 ‘ㄹ’인 용언이 활용할 때, [ㄴ, ㅂ, ㅅ, ㄹ]로 시작하는 어미나 종결 어미 ‘-오’가 어간에 결합하면, 어간의 끝 받침 ‘ㄹ’이 줄어진다 했다.³⁰⁾ 곧 /ㄹ/은 자음 앞에서나 종결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는 것인데, 음운론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읍쇼셔’는 19세기에, ‘맏소사’와 ‘맏시사’는 20세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³¹⁾

- (32) ㄱ. 언제는 홀일 업시 내 쫓 빙옥 속절 업시 죽겠구려. 이고 이를 엇지흐나? 마읍쇼셔 마읍쇼셔. 하느님도 이다지도 무심흐신가? 이고 이고, 엇지흐면 도탄 말가? [약산동덕, 85]
- ㄴ. 가뜩이나 업살을 부리는데다 더 흥측을 떨며 “어이쿠! 어이쿠! 하나님 맏시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날 잡아가지 왜 이리 남겨 두슈!” [파라지(1937), 292]

(32ㄱ)의 ‘마읍쇼셔’는 ‘말다’의 ‘부정, 금지’ 등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음이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32ㄴ)의 ‘맏시사’는 부정, 금지의 의미보다

29) 참고로, 나찬연(2020c, 100)에서는 용언의 어간이 /ㄹ/로 끝나고, 그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어미의 첫소리 /ㄱ/이 /ㄹ/로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였다. 그런데 ‘말다’의 경우는 불규칙하여, 어미 /ㄱ/만 /ㄹ/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말다’의 어간 끝소리인 /ㄹ/도 함께 탈락할 수 있다 하였다.

ㄱ. 橫邪에 줄어디디 막오져 브라미오 [법언 5:155]

ㄴ. (사극미) 魔說을 아라 제 빠디디 마와더 브라노라 [능언 9:112]

30) 관용적으로 [ㄹ]이 줄어진 형태로 발음되는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하)다마다, (하)자마자, (하)지 마라, (하)지 마(아)’ 등은 준 대로 적는다.

31) 이는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의 검색 결과에 따른 것이다.

는 지금의 ‘맙소사’처럼 ‘놀람, 기가 막힘’ 등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맙소사’가 적어도 19세기경까지는 부정이나 금지 등의 의미적 연관성으로 인해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말+읍+쇼셔’를 상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형태적으로는 ‘말+읍+쇼셔’와 연관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의미적 연관성은 포착하기 어렵다.³²⁾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융합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III. 복합어 감탄사의 품사 결정 양상과 의미적 연관성

1. 품사 결정 양상

여기에서는 먼저 복합어 감탄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모여 ‘감탄사’라는 품사로 설정되는 근거를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그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3) ㄱ. 단어형

- ㉠ 명사 개입: 명사+명사, 관형사+명사, 명사+조사, 명사+접사, 명사+불분명 어근, 명사+준어근, 불분명 어근+명사, 준어근+명사
- ㉡ 부사 개입: 부사+조사, 부사+불분명 어근, 부사+준어근, 준어근+부사
- ㉢ 기타: 어근+어근, 준어근+접사, 불분명 어근+불분명 어근, 불분명 어근+준어근, 준어근+준어근

ㄴ. 구 구성형

32) (32)에 대해서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문헌상에 처음 나타나는 형태는 19세기의 ‘마음쇼셔’이다. 감탄사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도 ‘말다’의 기본 의미는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세기에 보이는 ‘맙시사’ 형태는 완전히 감탄사로 바뀐 용법이다. ‘맙시사’는 ‘맙소사’의 방언 형태로 볼 수 있다.”

- ㉠ 구+명사: [명사+어근]+명사
- ㉡ 구+부사: [관형사+부사]+부사
- ㉢ 구+불분명 어근: [불분명 어근+조사]+불분명 어근
- ㉣ 구+구: [불분명 어근+조사]+[불분명 어근+조사], [불분명 어근+어미]+[명사+조사]

㉤. 융합형

- ㉠ 단어+용언의 활용형: 명사+[조사+동사 활용형(융합형)]
- ㉡ 용언의 활용형+어미: 동사 활용형+어미

김문기(2011, 140-141)에서 다른 품사와 통용되는 감탄사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때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와 통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명사와 통용되는 것이 가장 많았고, 부사, 대명사, 관형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문기(2019)에서는 복합어 감탄사 중, 감탄사를 그 구성 요소로 포함한 것을 대상으로 그 품사 결정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선·후행 요소가 모두 품사를 결정하는 것, 선행 요소가 품사를 결정하는 것, 후행 요소가 품사를 결정하는 것, 선·후행 요소 중 어느 것이 품사를 결정하는지 모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들과 관련지어 살펴볼 때,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에서는 (33㉠, ㉡)에서처럼 ‘명사, 관형사, 부사’ 등이 포함된 복합어 감탄사가 24개였다. 또 (34㉢)에서처럼 그 외의 다른 문법 범주로 구성된 복합어 감탄사는 22개였다. 그리고 구 구성형 복합어 감탄사인 (33㉣)에서도 ‘명사, 관형사, 부사’가 포함된 경우가 5개 있었다. 융합형 복합어 감탄사인 (33㉤)에서는 ‘명사’가 포함된 것이 1개 있었으며, 나머지 1개는 ‘동사’의 활용형이었다.

이처럼 구성 요소로 ‘명사, 관형사, 부사’ 등이 포함된 경우는, 이들이 감탄사와 통용되는 대표적인 문법 범주라는 점에서 충분히 감탄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2. 의미적 연관성

다음으로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34) ㄱ. 두 구성 요소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뚜렷한 것: 가동가동,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시장시장, 요개1, 우향우(右向右), 육시(戮屍)랄, 이개1, 이괴, 좌향좌(左向左), 짹짹짹짹
- ㄴ. 다른 형태의 구성 요소 중 한 구성 요소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 곁음마, 굽아, 도시위(侍衛), 뵈시위(侍衛), 안가시위(安駕侍衛), 알나리갈나리, 엇단쇠, 예시위(詣侍衛), 오라질, 이리연초, 이리위, 저리위, 저멀리직직, 질라래비훤훤, 천하(天下)에
- ㄷ. 같은 형태의 구성 요소 반복 구성으로서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 도리도리, 등개등개, 따로따로2
- ㄹ. 두 구성 요소 모두와 의미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곤두곤두, 곤지곤지, 달강달강2, 드레드레2, 맵소사, 무에리수에, 부라부라, 섬마섬마, 세상(世上)에, 시재시재(時哉時哉), 시호시호(時乎時乎), 아이스케키, 어허라달구야, 어허야어허, 오냐오냐, 오래오래2, 왕배야덕배야, 우라질, 자장자장, 죄암죄암, 쥐엄쥐엄, 천만(千萬)에, 천지(天地)에, 허허등등, 허허이루후어

(34ㄱ)은 의미의 합성성을 따르는 복합어 감탄사로서,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 합성이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복합어 감탄사는 10개이다.

(34ㄴ, ㄷ)은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가 그 구성 요소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먼저 (34ㄴ)은 복합어 감탄사의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른 형태일 경우, 한 구성 요소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복합어 감탄사는 모두 15개였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미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인 ‘의미적 전이, 은유, 환유, 화용적 쓰임’ 등을 적용하기에는 곤란해 보인다.

- (35) 가. 알나리깔나리: 아이들이 남을 놀릴 때 하는 말.
 나. 알-나리 「명사」 어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벼슬한 경우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다. 깔나리: 『표준』에 없음.

(35가)은 (35나)의 의미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35다)이 『표준』에 어떠한 문법 범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5가)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 (36) 가. 이리연초: 심마니들의 은어로, ‘이곳에 모여 쉬자.’라는 뜻으로 쓰는 말. 주로 구령 조로 쓴다.
 나. 이리3 「부사」 이곳으로. 또는 이쪽으로.
 다. 연초1(年初) 「명사」 새해의 첫머리.
 리. 연초2(煙草) 「명사」 가짓과의 한해살이 식물. 높이는 1.5~2미터이며, 40여 개의 넓고 길쭉한 잎은 어긋나고 줄기에 촘촘히 난다. 여름에 깔때기 모양의 연분홍 꽃이 줄기 끝에 원추(圓錐)화서로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삭과(蒴果)로 10월에 맺는다. 공예 작물로 재배하는데 잎을 건조시켜 담배를 만든다.
 라. 연초3(煙硝) 「명사」 열, 전기, 충격 따위의 가벼운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연소 또는 분해 반응을 일으키고 높은 온도의 열과 압력을 가진 가스를 발생시켜 파괴, 추진 따위의 작용을 행하는 화합물이나 혼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36가)과 (36나)에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로 본다면 그 의미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36다~라)은 (36가)과의 의미적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만약 (36가)의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를, (36리)의 담배를 피운다는 의미와 관련짓는다 하더라도 ‘연초2’는 명사이지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34다)은 복합어 감탄사의 구성 요소가 동일 형태의 반복 구성으로서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3개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한다.

- (37) ㄱ. 도리-도리: 어린아이에게 도리질을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ㄴ. 도리1 「명사」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싫다거나 아니라는 뜻을 표시하는 짓.
 ㄷ. 도리-질 「명사」 「1」 말귀를 겨우 알아듣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 「2」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싫다거나 아니라는 뜻을 표시하는 짓.

(37ㄱ)의 구성 요소인 (37ㄴ)의 의미를 볼 때, 그 의미적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37ㄷ)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37ㄴ)은 그 가운데 하나만 제시되어 있다. 또한 (36ㄱ)에는 (37ㄷ)의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7ㄱ)은 (37ㄴ)의 반복 구성으로서 ‘강조’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기 어렵다.

- (38) ㄱ. 동개-동개: 아기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 ‘둥둥’에 가락을 넣어서 더 재미있게 하는 소리이다.
 ㄴ. 동개: 『표준』에 없음.
 ㄷ. 동개-질 「명사」 어린아이를 안거나 쳐들고 어르는 일.

(38ㄱ)은 (37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38ㄷ)의 의미로 볼 때 ‘동개’의 의미가 (38ㄴ)처럼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38ㄷ)과 (38ㄱ)의 의미적 연관성은 분명히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그 구성 요소가 『표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데, (38ㄷ)과 (38ㄱ)으로 볼 때, 분명히 ‘동개’에는 이들과 관련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37ㄴ)처럼 (38ㄴ)을 『표준』에 등재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4ㄷ)은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가 두 구성 요소 모두와 의미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25개의 복합어 감탄사가 해당된다. 그런데 이는 복합어 감탄사와 그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의미적 연관성이 없기에 의미적 전이나 은유, 환유 등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

약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국어사전에서 이러한 감탄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복합어 감탄사의 구성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단어들의 처리 방식을 참고하여 불분명한 어근과 준어근 등을 사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39) ㄱ. 맵-소사: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거나 당할 때 탄식조로 내는 소리.
 ㄴ. 말-3 [I] 「동사」 「1」 [···을]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둔다. 「2」 (‘-거나 말거나’, ‘-거니 말거니’, ‘-나 마나’, ‘-든지 말든지’, ‘-ㄹ(을)까 말까’ 따위와 같은 구성으로 쓰여) ‘아니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3」 (‘말고’ 꼴로 명사의 단독형과 함께 쓰여) ‘아니고’의 뜻을 나타낸다. [II] 「보조 동사」 「1」 (동사 뒤에서 ‘-지 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을 나타내는 말. 「2」 (동사 ‘-고(야) 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을 나타내는 말. 일을 이루어 낸 데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이고 아쉬운 느낌이 있음을 나타낸다.
 ㄷ. -소서6 「어미」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39ㄱ)의 의미는 (39ㄴ-[II]「2」)의 의미와 관련이 있어 보이며,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39ㄷ)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39ㄴ-[II]「2」)는 보조 동사로서의 의미 기능에 해당한다. 즉, ‘-고(야) 말다’라는 특정한 보조 용언 구성에서만 발현되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39ㄱ)과의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분명히 드러난다고는 하기 곤란해진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이들이 쓰이기 때문에 화용론적 쓰임에 바탕을 둔 관용적 의미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계기로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감탄사가 특정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어 조사 보고서’와 같은 자료의 시기별

축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표준』에 제시된 복합어 감탄사 가운데 그 구성 요소로 감탄사가 포함되지 않은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저 앞서 논의한 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에 제시된 복합어 감탄사 53개를 ‘단어형, 구 구성형, 융합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둘째,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에는 모든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것(명사+명사, 관형사+명사, 명사+조사, 부사+조사, 명사+접사, 어근+어근), 모든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불분명한 것(불분명 어근+불분명 어근, 불분명 어근+준어근, 준어근+준어근)으로 다시 나누었다. 또한 한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것에는 후행 요소가 불분명한 것(명사+불분명 어근, 부사+불분명 어근, 명사+준어근, 부사+준어근)과 선행 요소가 불분명한 것(준어근+명사, 준어근+부사, 준어근+접사)이 있었다.

셋째, 구 구성형 복합어 감탄사에는 ‘구+명사([명사+어근]+명사), 구+부사([관형사+부사]+부사), 구+불분명 어근([불분명 어근+조사]+불분명 어근), 구+구([불분명 어근+조사]+[불분명 어근+조사], [불분명 어근+어미]+[명사+조사])’ 등이 있었다.

넷째, 융합형 복합어 감탄사로는 ‘단어+용언 활용형(명사+동사 어간+어미, 명사+[조사+동사 어간+어미(융합형)]), 용언 활용형+어미(동사 활용형+어미)’로 구성된 것이 있었다.

다섯째, 이러한 내부 구조를 볼 때 ‘어근, 불분명 어근, 준(準)어근’ 등과 같은 문법 단위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논의했다.

여섯째, 복합어 감탄사의 품사 결정 양상은 그 구성 요소에 포함된 문법 범주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품사로 통용되는 감탄사를 보면, 주로 ‘명사, 부사, 대명사, 관형사’ 등이었는데, 『표준』의 복합어 감탄사의 구성 요소로 ‘명사, 관형사, 부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들 문법 범주들은 감탄사로 통용될 확률이 높다고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어근, 불분명 어근, 준어근, 조사, 접사, 동사 활용형, 어미’ 등의 구성 요소가 쓰였다.

일곱째, 복합어 감탄사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의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두 구성 요소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뚜렷한 것’, ‘다른 형태의 구성 요소 중 한 구성 요소와의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형태의 구성 요소 반복 구성으로서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것’, ‘두 구성 요소 모두와 의미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그 구성 요소로 감탄사를 포함하지 않는 복합어 감탄사를 대상으로 문법론, 특히 조어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없었기에 본 논의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본 논의가 지니는 의의는 복합어 감탄사에 대한 문법론적 분석의 하나의 시도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한편, 본 논문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의 복합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조어법 관련 연구들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예들에 국한된 복합어의 결합 양상을 보여 주는 데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모든 복합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결합 양상과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 천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어법과 관련된 문법 요소나 문법 범주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복합어 감탄사에 관여하는 구성 요소들의 문법 범주적 지위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조어법에서는 감탄사의 예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 구성 요소에 대한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국어의 복합어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결합 양상과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적 속성을 상세하게 규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법 단위에 대한 검토가 다시금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문법 단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설명 방법의 고민을 통해 새로운 문법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복합어 감탄사, 내부 구조, 결합 양상, 의미적 관계, 『표준국어대사전』

[참고문헌]

- 고영근,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135-145, 199-268.
- 김문기 (2011). 품사 통용 감탄사의 처리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8, 129-152.
- 김문기 (2017). 뜻풀이로 본 『표준국어대사전』의 감탄사 유형 연구. *우리말연구*, 50, 1-26.
- 김문기 (2019). 한국어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유형과 품사 결정 양상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47, 409-444.
- 김일병 (2000). 국어 합성어 연구. 서울: 역락, 29-214.
- 나찬연 (2020a). 국어 교사를 위한 고등학교 문법. 서울: 경진, 62-78, 132-161.
- 나찬연 (2020b). *벼리 어문 규범(제2판)*. 서울: 월인, 171-235.
- 나찬연 (2020c). *중세 국어의 이해*. 서울: 경진, 67-106, 242-281.
- 도원영 (2008). *국어 형용성 동사 연구*. 서울: 태학사, 205-251.
- 두청 (2016). *한국어 감탄사의 형태 · 통사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양양 (2011). *한국어 감탄사의 문법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유현경, 안예리, 손혜옥, 김민국, 전후민, 강계립, 이찬영 (2015). *한국어의 문법 단위*. 서울: 보고사, 11-164.
- 이선영 (2006). *국어 어간복합어 연구*. 서울: 태학사.
- 이선웅 (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서울: 월인, 41-67, 90-124.
- 이원표 (1993). *의지감탄사 “예, 글썸, 아니”의 담화분석*. *인문과학*, 69, 139-185.
- 이재인 (2001). *국어 형태론에서 ‘어근’ 개념*. *배달말*, 28(1), 93-112.
- 이호승 (2003). *통사적 어근의 성격과 범위*. *국어교육*, 112, 373-397.
- 정한데로 (2014). *단어 형성과 의미 합성성*. *한국어 의미학*, 44, 263-289.
- 조철현 (1992). *동사형성 복합어 형태의 기능*. *인문과학*, 68, 51-70.
- 최형용 (2009). *‘형성소’와 ‘어근’ 개념의 재고를 통한 ‘어근 분리 현상’의 해석*. *국어학*, 56, 33-60.
- 최형용 (2016). *한국어 형태론*. 서울: 역락, 17-111, 283-292, 313-334, 415-475.
- 최형용 (2017). *단어 형성과 형태소*. *국어학*, 81, 351-391.
- 최형용 (2018). *한국어 의미 관계 형태론*. 서울: 역락, 31-67, 273-324.
- Bybee, J. (1985). *Morphology*. 이성하, 구현정 옮김 (2000). *형태론*. 서울: 한국문화사, 153-237.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복합어 감탄사 중, 감탄사가 그 구성 요소로 포함되지 않은 자료 53개를 대상으로 삼아 문법론적인 관점에서 그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복합어 감탄사를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 구 구성형 복합어 감탄사, 융합형 복합어 감탄사’로 분류하였다. 이때 그 구성 요소들의 문법적 특성에 따라 다시 구체적으로 하위분류해 보았다. 단어형 복합어 감탄사에는 그 구성 요소의 문법 범주가 분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다. 구 구성형 복합어 감탄사는 ‘구’와 ‘명사, 부사, 불분명 어근, 구’ 등이 결합한 유형이 나타났다. 융합형 복합어 감탄사에는 ‘단어+용언 활용형, 용언 활용형+어미’ 등으로 구성된 것이 있었다.

이러한 복합어 감탄사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면서, ‘어근, 불분명 어근, 준(準)어근’ 등과 같은 문법 단위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논의했다.

한편, 이러한 복합어 감탄사가 감탄사라는 문법 범주로 설정될 가능성과, 그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감탄사로의 품사 결정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복합어 감탄사의 구성 요소에 포함된 문법 범주들에 주목했다. 품사 통용의 감탄사들은 주로 ‘명사, 부사, 대명사, 관형사’ 등과 품사 통용이 가능했다. 그런데 복합어 감탄사의 구성 요소로 쓰인 문법 범주 역시 ‘명사, 관형사, 부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들 문법 범주들은 감탄사로 통용될 확률이 높다고 파악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combination in Korean compound exclamations without exclamation as its component

Kim, Mun-gi (Kyungsoong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combination of compound exclamations listed in ‘Standard Korean Dictionary’ wer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word formation method. In this case, 53 compound exclamations that do not include exclamations as a component were used as data. At this time, I tried to sub-categorize them in detail again according to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onents.

There were those in which the grammatical categories of the components were clear and not clear in the word-type compound exclamations. Phrase-constituting type compound exclamations were a combination of ‘phrase’ and ‘noun, adverb, ambiguous root, phrase’. And Convergence-type compound exclamations consisted of ‘word+verb conjugation’ and ‘verb conjugation+ending’.

In analyzing the combination of these compound exclamations, the necessity of grammatical units such as ‘root, ambiguous root, and quasi-root’ was briefly discussed.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such compound exclamations being set as the grammatical category of exclamations and the semantic connection between its components were examined. In particular, in order to examine the parts of speech decision patterns of exclamations, attention was paid to the grammatical categories included in the components of compound exclamations. The exclamations used in conversion of parts of speech were mainly able to be used with ‘nouns, adverbs, pronouns, and adjectives’. However, in the grammatical category used as a component of compound exclamations, ‘nouns, adjectives, and adverbs’ were the main ones. Therefore, it was identified that these grammatical categories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used as an exclamation conversion.

[Keywords] compound exclamation, internal structure, aspects of combination, semantic association, Standard Korean Dictionary

논문투고일: 2021년 6월 25일 / 논문심사일: 2021년 7월 29일 /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1일

【저자연락처】 kimmg5058@hanmail.net